KIA 타이거즈 대체 외국인 투수 에릭 스타우트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준수와 호흡을 맞춰 불펜피칭을 소화하며 출격 준비를 끝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스타우트, 스타트 업

불펜피칭 30구 소화하며 컨디션 점검…최고 구속 144㎞ 나와
스타우트 "몸 상태 문제없다…내가 나선 경기 모두 승리하고파"

KIA 타이거즈 대체 외국인 투수 에릭 스타우트가출격준비를 끝냈다.

스타우트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포수 한준수와 호흡을 맞추면서컨디션을점검했다. 그는 이날 불펜피칭을 하면서 30구 정도를 소화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첫 피칭에 나선 그는 포심,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를 던졌다.

지난 23일 대만 프로야구리그에서 100구를 소화하면서 실전을 했었던 만큼 전력 피칭이 아니라 컨디션 점검에 초점을 뒀다.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기 상황을 설정하고 투구도 진행했다. 이날 스타우트의 최고 구속은 144㎞를 기록했다.

새로운 공인구로 피칭을 한 스타우트는 "공인구가 아주 조금 작고 심이 두꺼운 느낌이다. 날씨가 조금 덥지만 대만과 비슷해서 괜찮다. 첫 등판 전까지 잘 적응하도록 하겠다"며 "대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 몸 상태도 문제없다"고 첫 피칭 소감을 말했다.

KIA의 위기가 스타우트에게는 기회가 됐다.

스타우트는 "KBO는 예전부터 친구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KBO에서 뛰게 돼서 영광이다. KT 벤자민에게도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KBO팀에서 연락이 오면 지나치기 힘든 기회라고 들었는데, 기회가 왔다. 한 단계 경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NC 카일 하트에게서도 타자들 유형, 문화, 음식 추천도 받았다. 꼭 뛰어볼만한 수준 높은 리그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스타우트는 포스트시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리그에서 5차례 정도 등판을 하면서 KIA의 우승 행보에 힘을 싣고 더 큰 기회를 위한 어필 무대를 갖게 된다.

그는 "내가 나선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싶다. 모든 걸 쏟아낼 준비가 됐다. 내년을 위해서도 나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곳에 오게 돼서 기쁘다"며 "두려움 없이 공을 던진다는 게 나의 가장 큰 강점이다. 타석에 누가 서있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던질 수 있다. 또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고 슬라이더도 강점이다. 도전 의식, 자신감이 많은 선수다.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위를 하고 있는 팀이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1위를 지키도록 하겠다. 팀의 타격이 강하다고 들었다. 선발로서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득점 지원이 기대된다. 대만에서 하던 대로 하겠다"며 "이곳에서 비디오도 많이 보고 앞에서 던졌던 것들도 살펴봤다. (투구습관 등)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과 제임스 네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전했다.

스타우트는 "동료들도 정말 따뜻하게 나를 맞아줬다. 팀의 역사와 역사적인 선수들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다. 특히 양현종에 대해 들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던졌고, 한국에서 20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로 많은 부분 존경할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배우겠다. 다른 모든 선수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배우겠다"고 밝혔다.

또 "네일이라는 선수가 팀과 팬들에게 어떤 의미의 선수인지 알고 있다. 또 리그에서도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고 있어서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안타깝다"며 "전 동료들을 통해서 그가 강한 선수라고 들었다. 충분히 돌아와서 한국시리즈에서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네일의 쾌유를 기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59경기만에 100만 관중 '역대 두번째'

KBO '900만 시대' 활짝

타이거즈 역사상 두 번째 100만 관중이 기록됐다. KBO는 9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지난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시즌 14차전에 1만 3155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이 100만 215명(평균관중 1만 6953명)이 되면서 '100만 관중'을 기록했다.

'V11'을 이룬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록된 두 번째 100만 관중이자 59경기 만에 기록된 대기록이다. 2017년에는 70경기에서 100만관중을 넘어섰다.

이날 KBO 900만 관중 돌파 기록도 동시에 작성됐다.

챔피언스필드 포함 전국 5개 구장에 6만 9559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KBO 누적 관중수는 900만 904명이 됐다. 610경기 만에 기록된 KBO 첫 900만 관중이다.

폭염도 막지 못한 프로야구 인기다.

KBO는 지난 13일 800만 관중을 달성한 뒤 15일 만에 900만 관중을 돌파했다. 61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더한 KBO는 무더운 날씨에도 8월 평균관중 1만 5398명을 기록했다.

8월 평균관중수가 감소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 시즌에는 치열한 순위 싸움과 기록 행진 속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올 시즌 월별 평균 관중은 시즌 개막 시점인 3월 1만 5529명에 이어 8월이 1만 5398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6월 1만 5236명으로 3위, 5월과 7월에는 각각 평균 1만 4881명과 1만 4832명을 기록했다. 4월에 유일하게 1만 3262명으로 1만 3000명 대를 기록하는 등 올 시즌 전체 평균 관중은 1만 4756명에 이른다.

평일 관중 증가가 눈에 띈다.

2023시즌 주중 시리즈(화~목)의 평균 관중은 1만 명 미만이었지만 2024시즌에는 화요일 1만 1863명, 수요일 1만 2834명, 목요일 1만 2977명을 기록했다.

금~일요일에 전개되는 주말시리즈 관중수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2023시즌에는 토요일(1만 6148명)에만 평균 관중 1만 5000명을 넘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금요일 1만 5849명, 토요일 1만 8641명, 일요일 1만 680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흥행 상승세 속에 100만 관중을 넘긴 구단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두산이 가장 먼저 지난 8일 홈 58경기를 치른 시점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삼성도 홈 58경기를 치른 시점인 14일 100만 관중을 기록했다.

이어 16일에는 LG가 가장 적은 53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넘겼고, '140만 인구'의 광주를 연고로 한 KIA도 28일 100만 관중팀 대열에 합류했다.

SSG(95만 1776명)와 롯데(93만 5869명)도 1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9일 경기 포함 KBO리그는 110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BO리그가 900만 관중을 넘어 어디까지 기록행진을 펼칠지 주목된다.

한편 28일 100만 관중을 넘긴 KIA는 2017년 작성된 102만 4830명을 넘어 최다관중 경신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시 솟구친 성화…프랑스 첫 장애인 스포츠축제 개막

패럴림픽 9월 9일까지…182개국 22개 종목 4400여명 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포츠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장애인 선수들의 축제가 시작됐다.

지난 29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개선문과 콩코르드 광장을 잇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의 야외 개막식이 치러졌다.

이날 개막식이 열린 콩코르드 광장은 화합과 일치의 뜻을 담고 있는 만큼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의 개막식 장소로 적합했다는 평이다.

프랑스는 1900·1924·2024년 총 세 차례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패럴림픽은 처음이다.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패럴림픽과 올림픽을 같은 도시에서 치르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회는 프랑스 최초의 패럴림픽으로 남는다.

이번 개막식은 프랑스 장애인 수영선수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테오 퀴랭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 속 퀴랭이 이번 대회의 마스코트 '프리주' 인형으로 장식된 택시를 타고 패럴림픽 선수들을 태워 파리 시내를 누비는 동안 광장 주변에 설치된 무대에서 장애인 예술가와 댄서, 가수들이 '불협화음'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쳤다.

퀴랭이 '프리주 택시'를 몰고 콩코르드 광장에 나타난 뒤 무대에 합류하자 개최국인 프랑스 국기를 표현하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의 축포가 터졌다.

센 강 위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했던 올림픽 개막식과는 달리 이번 개막식에는 선수단이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걸으며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질렀다.

카누 최용범(도원이엔씨)이 기수를 맡은 한국 선수단은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36번째 순서로 입장했다.

비장애인 카누 선수였던 그는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겪은 후 파라 카누 선수로 전향했고, 이번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한국은 17개 종목에 83명의 선수를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세계 182개국 4400여명의 선수들은 오는 9월 9일까지 22개 종목에서 열전을 이어간다.

축하공연에서는 선천적으로 한 팔 없이 태어난 프랑스 가수 럭키 러브가 부른 자작곡 '마이 어빌리티(my ability)'에 맞춰 장애인 무용수들이 무대를 채웠다.

러브는 '장애에도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를 선보이며 윗 옷을 벗어 자신의 신체를 드러냈다.

이번 개회식 성화 봉송 주자로 파리 올림픽 수영 동메달리스트 플로랑 마노두가 나섰다.

그가 2008 베이징 패럴림픽 휠체어 테니스 우승자인 미카엘 제레미아즈에게 건넨 성화는 이탈리아 휠체어 펜싱 선수 베베 미오, 미국 장애인 멀티종목 선수 옥사나 마스터스, 독일 장애인 육상 선수 마르쿠스 렘을 거쳐 프랑스 패럴림픽 전설들에게 넘겨졌다.

성화는 2004 아테네 대회 육상 4관왕 아시아엘 아누니, 휠체어 펜싱 10관왕 크리스티앙 라쇼, 장애인 수영 20관왕 베아트리스 에스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알렉시 앙캥캉, 낭트냉 케이타, 샤를 안토니 코아쿠, 엘로디 로랑디, 파비앙 라미로가 올림픽과 동일한 '열기구 성화대'에 불을 붙였고 다시 하늘 위로 떠오른 성화대가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한국은 29일 배드민턴 정겨울·권현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출전한 여자 복식 조별예선과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나선 WH1-2 남자 복식 조별예선으로 패럴림픽 첫 일정을 시작했다.

한편 이번 패럴림픽은 오는 9월 9일까지 이어지며, 9일 오전 4시 폐막식이 치러진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왼쪽부터 반효진(대구체고), 양지인(한국체대), 오예진(IBK기업은행). /연합뉴스

"패럴림픽 사격 선수들 선전하세요"

'파리 사격 삼총사' 반효진·양지인·오예진 응원 메시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격 3총사' 반효진(대구체고), 양지인(한국체대), 오예진(IBK기업은행)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사격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28일 "반효진, 양지인, 오예진 선수가 응원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고, 관련 내용을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전달했다"며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사격은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 후보 종목으로 꼽힌다.

한국 장애인사격은 이번 대회에 12명(박진호, 심영집, 이윤리, 서훈태, 박동안, 이철재, 김연미, 조정두, 박명순, 박세균, 이유정, 김정남)의 선수를 파견하고 금메달 2개 이상을 기대한다.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은 "대표팀이 3년 연속 월드컵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